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년 5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¹⁾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3.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188만 명(10.3%)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4만 명(41.9%)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노동시간,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속년수, 노조가입은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0.6%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3.4%, 비정규직은 29.5%다. 각 사업체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71%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둘째, 정규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을 사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 30~77%, 고용보험 가입률 16~72%, 퇴직금 적용률 13~68%, 상여금 적용률 25~61%로, 사업체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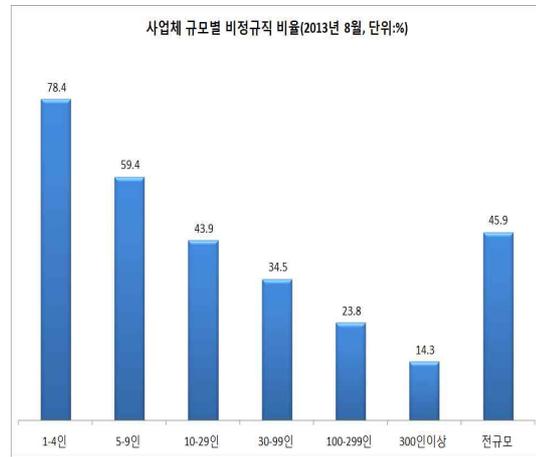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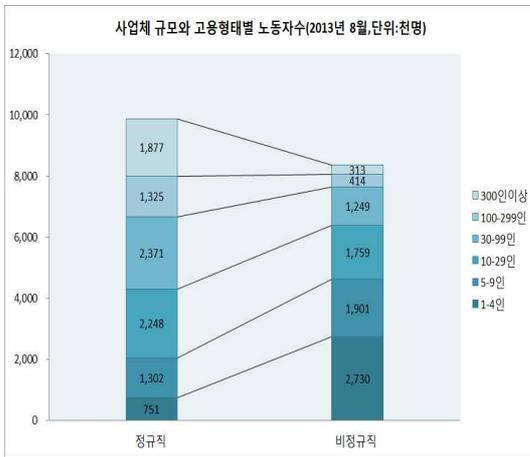
셋째, 건강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형태나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넷째,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교육훈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작다.

1) 이 글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2014년 5월 17일)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할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규모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987만 명(54.1%)이고 비정규직은 837만 명(45.9%)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19만 명(12.0%)으로 8명 중 1명꼴이고,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31만 명(78.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4.3%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78.4%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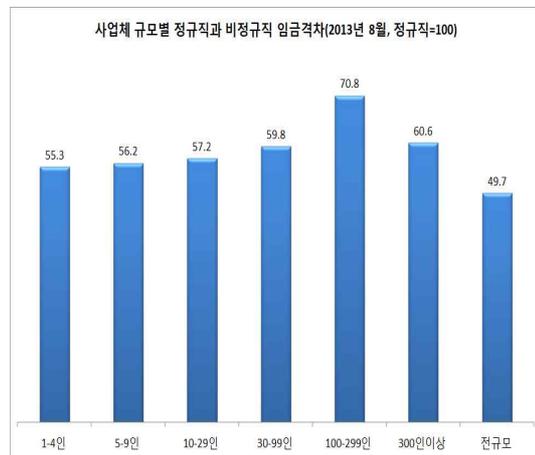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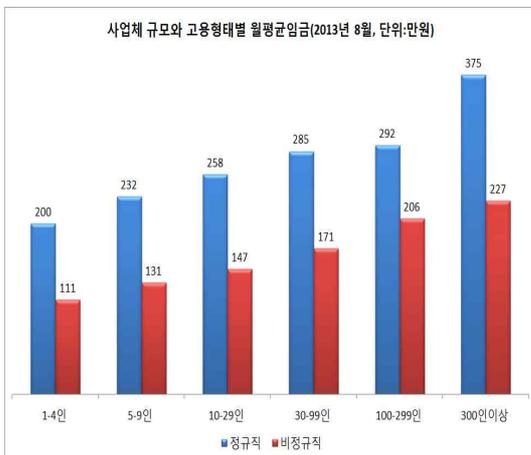
<표1>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3년 8월)

	수(천명)			구성(%)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751	2,730	3,481	4.1	15.0	19.1	78.4
5-9인	1,302	1,901	3,203	7.1	10.4	17.6	59.4
10-29인	2,248	1,759	4,007	12.3	9.6	22.0	43.9
30-99인	2,371	1,249	3,620	13.0	6.8	19.8	34.5
100-299인	1,325	414	1,739	7.3	2.3	9.5	23.8
300인 이상	1,877	313	2,190	10.3	1.7	12.0	14.3
전규모	9,874	8,366	18,240	54.1	45.9	100.0	45.9
100인 미만	6,672	7,639	14,311	36.6	41.9	78.5	53.4

2. 임금, 노동시간

가. 월평균임금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이 375만원이고 비정규직이 227만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는 정규직이 200만원이고 비정규직이 111만원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0.6%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3.4%, 비정규직은 29.5%다. 중소기업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5~71%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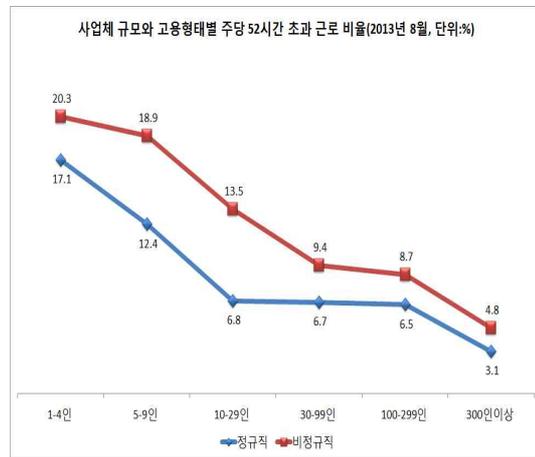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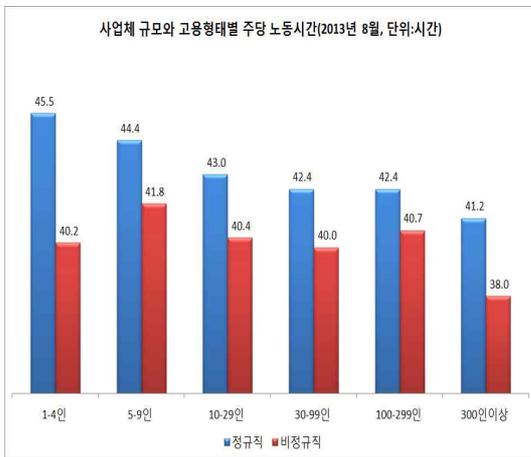
<표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2013년 8월)

	월평균임금(만원)			격차(300인 이상 정규직=100)			격차(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200	111	130	53.4	29.5	34.7	55.3
5-9인	232	131	172	62.0	34.8	45.9	56.2
10-29인	258	147	209	68.7	39.3	55.8	57.2
30-99인	285	171	246	76.1	45.5	65.5	59.8
100-299인	292	206	271	77.8	55.0	72.3	70.8
300인 이상	375	227	354	100.0	60.6	94.4	60.6
전규모	284	141	218	75.6	37.6	58.2	49.7

나. 노동시간

2013년 8월 현재 정규직 노동시간은 주 41~45시간으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비정규직은 300인 이상 사업체(38.0시간)가 짧고 5~9인 사업체(41.8시간)가 길은 것을 제외하면, 40~41시간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모든 규모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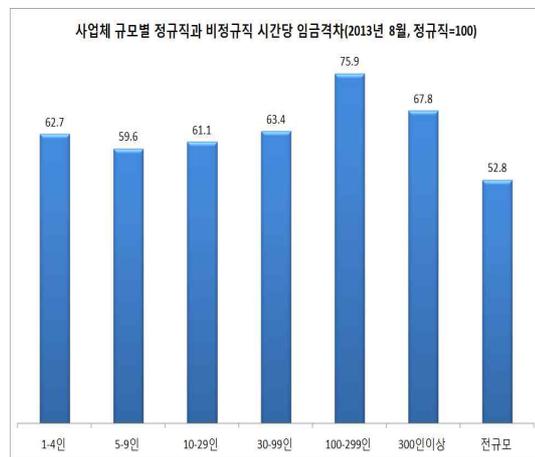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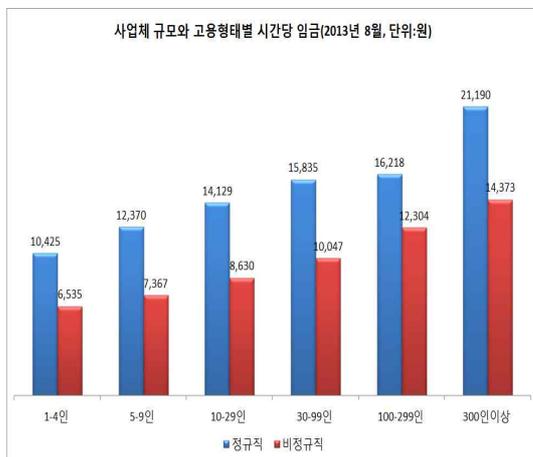


<표3>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2013년 8월)

	주당 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근로					
	평균값			중위값			수(천명)			비율(%)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1-4인	45.5	40.2	41.4	41.3	40.0	40.0	128	553	681	17.1	20.3	19.6
5-9인	44.4	41.8	42.8	40.0	40.0	40.0	161	358	519	12.4	18.9	16.2
10-29인	43.0	40.4	41.8	40.0	40.0	40.0	153	237	390	6.8	13.5	9.7
30-99인	42.4	40.0	41.6	40.0	40.0	40.0	160	118	278	6.7	9.4	7.7
100-299인	42.4	40.7	42.0	40.0	40.0	40.0	86	36	122	6.5	8.7	7.0
300인 이상	41.2	38.0	40.7	40.0	40.0	40.0	59	15	74	3.1	4.8	3.4
전규모	42.8	40.5	41.7	40.0	40.0	40.0	747	1,317	2,064	7.6	15.7	11.3

다. 시간당 임금

2013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시간당임금이 21,190원이고 비정규직은 14,373원이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10,425원이고 비정규직은 6,535원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7.8%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49.2%, 비정규직은 30.8%다. 중소기업업체 비정규직에게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각 사업체 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0~76%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표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시간당임금(201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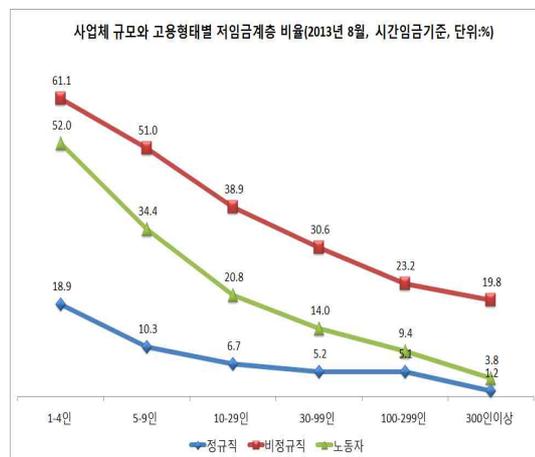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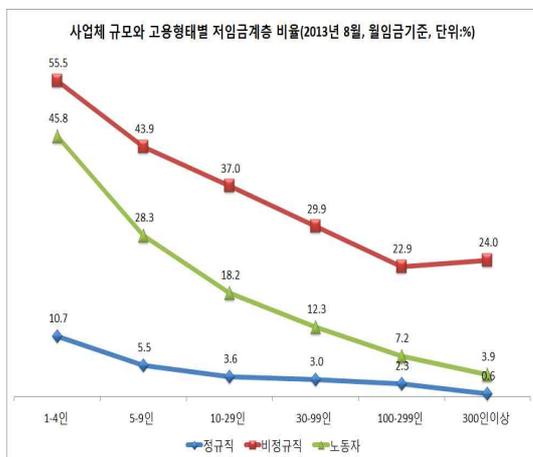
	시간당임금(원)			격차(300인 이상 정규직=100)			격차(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10,425	6,535	7,374	49.2	30.8	34.8	62.7
5-9인	12,370	7,367	9,400	58.4	34.8	44.4	59.6
10-29인	14,129	8,630	11,715	66.7	40.7	55.3	61.1
30-99인	15,835	10,047	13,838	74.7	47.4	65.3	63.4
100-299인	16,218	12,304	15,286	76.5	58.1	72.1	75.9
300인 이상	21,190	14,373	20,216	100.0	67.8	95.4	67.8
전규모	15,648	8,268	12,263	73.8	39.0	57.9	52.8

4. 저임금

가. 저임금 계층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3년 8월 현재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0.6% 비정규직은 24.0%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10.7% 비정규직은 55.5%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이 1.2% 비정규직이 19.8%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18.9% 비정규직은 61.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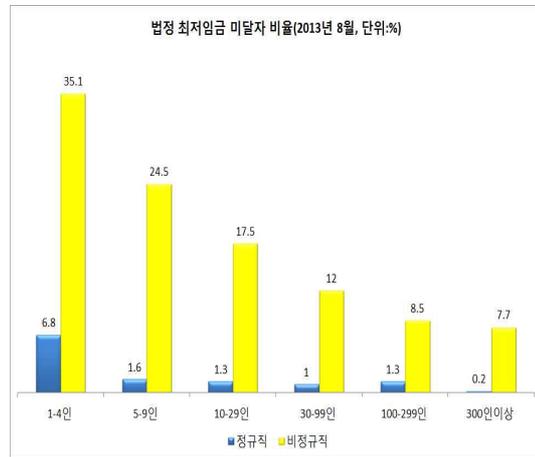


<표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저임금계층 비율(2013년 8월)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10.7	55.5	45.8	18.9	61.1	52.0
5-9인	5.5	43.9	28.3	10.3	51.0	34.4
10-29인	3.6	37.0	18.2	6.7	38.9	20.8
30-99인	3.0	29.9	12.3	5.2	30.6	14.0
100-299인	2.3	22.9	7.2	5.1	23.2	9.4
300인 이상	0.6	24.0	3.9	1.2	19.8	3.8
전규모	3.5	42.4	21.3	6.5	46.1	24.7

나. 법정 최저임금 미달

201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860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정규직이 15만 명(1.5%)이고 비정규직이 194만 명(23.2%)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법정 최저임금 미달 자가 0.2%인데, 비정규직은 7.7%다.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6.8% 비정규직은 35.1%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93%가 비정규직이고, 88%가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표6>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201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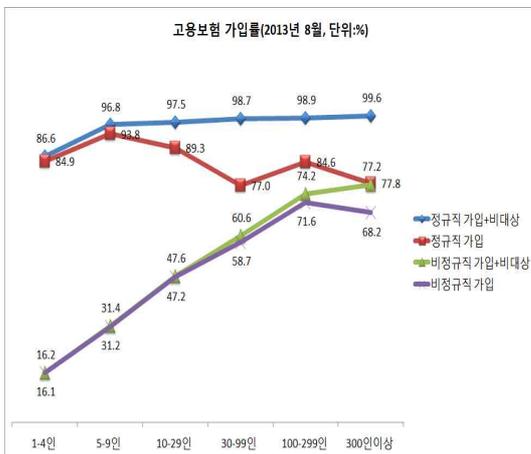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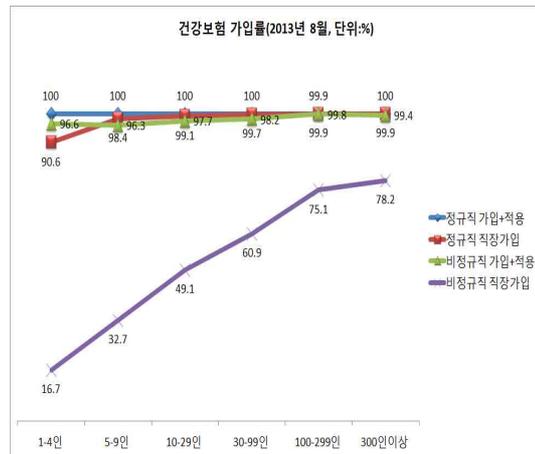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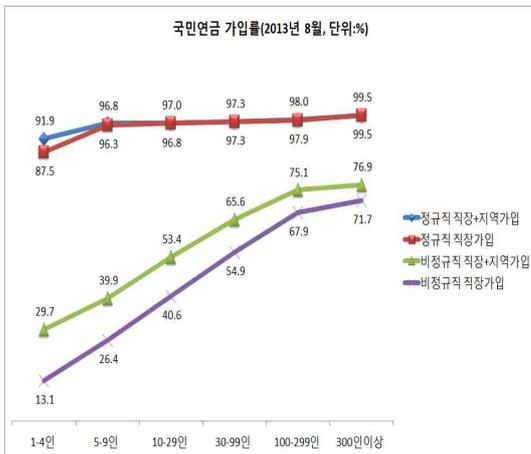
	수(천명)			비율(%)			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51	959	1,010	6.8	35.1	29.0	2.4	46.0	48.4
5-9인	21	465	486	1.6	24.5	15.2	1.0	22.3	23.3
10-29인	30	307	337	1.3	17.5	8.4	1.4	14.7	16.2
30-99인	23	150	173	1.0	12.0	4.8	1.1	7.2	8.3
100-299인	17	35	52	1.3	8.5	3.0	0.8	1.7	2.5
300인 이상	4	24	28	0.2	7.7	1.3	0.2	1.2	1.3
전규모	146	1,940	2,086	1.5	23.2	11.4	7.0	93.0	100.0

4.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은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이 가능하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88~100%고, 지역가입까지 합치면 92~100%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3~72%고, 지역가입까지 합쳐도 30~77%밖에 안 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체는 30%, 300인 이상 사업체는 77%로,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크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지역가입 이외에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91~100%고,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100%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비정규직은 직장가입률이 17~78%지만, 지역가입 등을 합치면 96~100%로 크게 개선된다.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7~94%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보다 낮은 것은, 공무원과 교사 등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중 미가입자가 0~13%로 많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2~84%로 사업체 규모별로 격차가 크다.



<표7>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2013년 8월, 단위:%)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가입)			고용보험(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87.5	13.1	29.1	90.6	16.7	32.7	84.9	16.1	31.0
5-9인	96.3	26.4	54.8	98.4	32.7	59.4	93.8	31.2	56.7
10-29인	96.8	40.6	72.1	99.1	49.1	77.1	89.3	47.2	70.8
30-99인	97.3	54.9	82.7	99.7	60.9	86.3	77.0	58.7	70.7
100-299인	97.9	67.9	90.7	99.9	75.1	94.0	84.6	71.6	81.5
300인이상	99.5	71.7	95.5	99.9	78.2	96.8	77.8	68.2	76.4
전규모	96.8	33.0	67.6	98.8	38.9	71.3	83.8	37.1	62.4

	국민연금(직장+지역가입)			건강보험(가입+적용)			고용보험(가입+비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91.9	29.7	43.1	100.0	96.6	97.4	86.6	16.2	31.3
5-9인	96.8	39.9	63.0	100.0	96.3	97.8	96.8	31.4	58.0
10-29인	97.0	53.4	77.9	100.0	97.7	99.0	97.5	47.6	75.6
30-99인	97.3	65.6	86.4	100.0	98.2	99.4	98.7	60.6	85.6
100-299인	98.0	75.1	92.5	99.9	99.8	99.9	98.9	74.2	93.0
300인이상	99.5	76.9	96.3	100.0	99.4	99.9	99.6	77.2	96.4
전규모	97.3	46.4	73.9	100.0	97.3	98.7	97.4	38.0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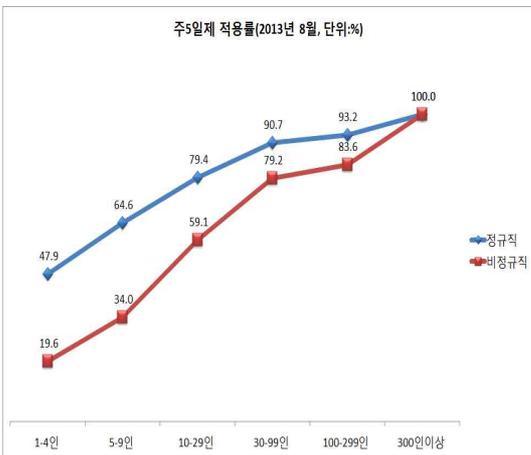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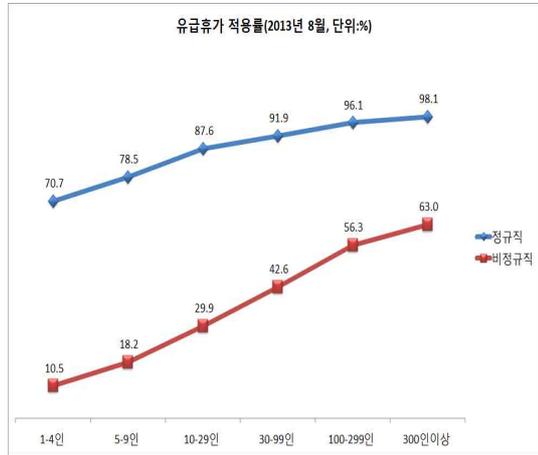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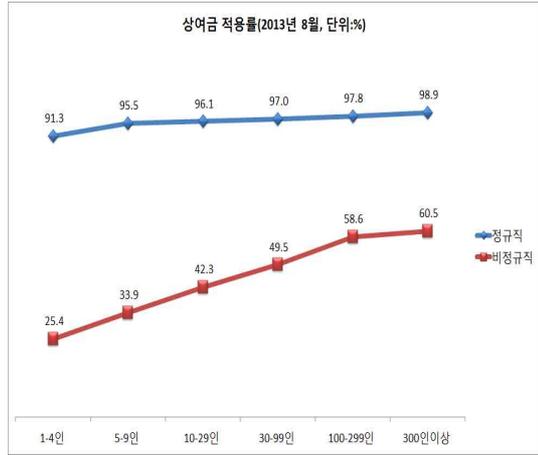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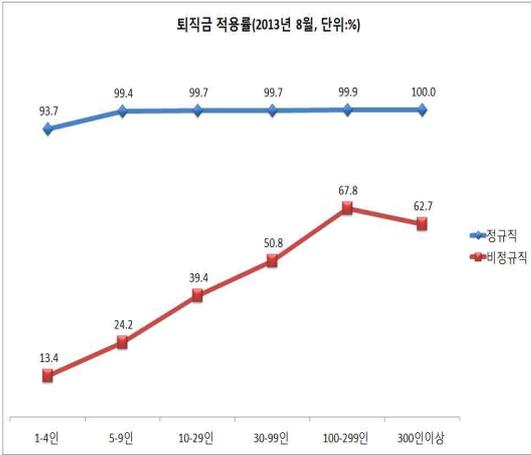
5. 기타 노동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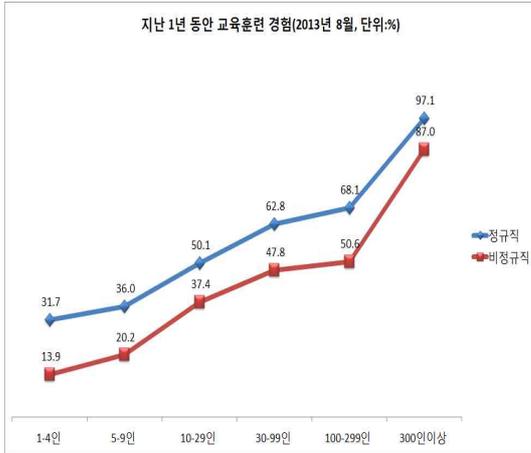
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 94~100%, 상여금 적용률 91~99%로, 사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대부분 적용받고 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 적용률 13~68%, 상여금 적용률 25~61%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률 차이가 크다.

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35~89%, 유급휴가 적용률이 71~98%다. 비정규직은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6~57%, 유급휴가 적용률이 11~63%다.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다.

주5일제와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100% 실시되고,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계약 서면작성 비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은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이 32~97%이고 교육훈련시간은 9~36시간이다. 비정규직은 각각 14~87%와 5~26시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고, 모든 규모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조금 높다.





<표8>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적용률(2013년 8월, 단위:%,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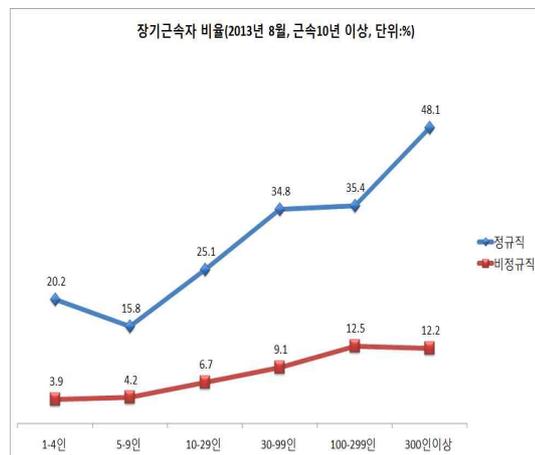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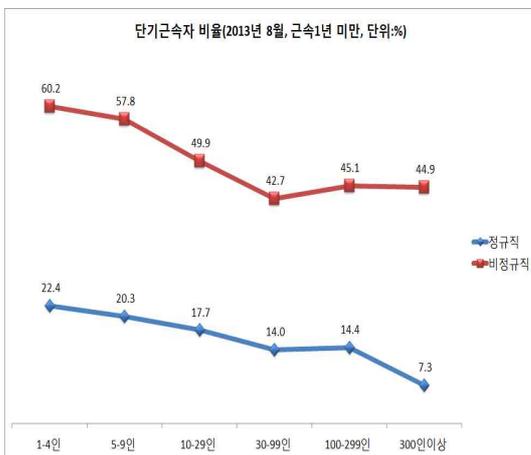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1-4인	93.7	13.4	30.7	91.3	25.4	39.6	35.0	6.4	12.6	70.7	10.5	23.5
5-9인	99.4	24.2	54.8	95.5	33.9	59.0	49.4	11.5	26.9	78.5	18.2	42.7
10-29인	99.7	39.4	73.2	96.1	42.3	72.5	66.8	21.7	47.0	87.6	29.9	62.3
30-99인	99.7	50.8	82.8	97.0	49.5	80.6	79.4	33.7	63.7	91.9	42.6	74.9
100-299인	99.9	67.8	92.3	97.8	58.6	88.5	84.5	50.6	76.4	96.1	56.3	86.6
300인 이상	100	62.7	94.7	98.9	60.5	93.4	88.9	56.5	84.3	98.1	63.0	93.1
전규모	99.3	31.4	68.2	96.6	37.5	69.5	71.7	18.9	47.5	89.3	25.4	60.0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교육훈련경험(%)			교육시간(시간)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1-4인	47.9	19.6	25.7	43.7	19.3	24.6	31.7	13.9	17.7	8.9	4.8	5.7
5-9인	64.6	34.0	46.4	57.7	33.2	43.1	36.0	20.2	26.7	10.5	5.1	7.3
10-29인	79.4	59.1	70.5	64.7	56.4	61.1	50.1	37.4	44.5	16.6	10.6	14.0
30-99인	90.7	79.2	86.7	64.1	74.4	67.7	62.8	47.8	57.6	26.1	13.5	21.8
100-299인	93.2	83.6	90.9	73.9	79.6	75.3	68.1	50.6	63.9	22.8	13.8	20.6
300인 이상	100	100	100	74.2	88.6	76.2	97.1	87.0	95.7	36.1	26.2	34.7
전규모	83.5	46.2	66.4	65.1	44.1	55.4	61.3	29.9	46.9	22.0	8.7	15.9

6. 고용안정성(근속년수)

고용안정성의 지표로 근속년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3~11.7년, 비정규직은 1.8~4.0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 정규직은 3.2~9.4년이고 비정규직은 0.5~1.4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근속년수가 증가하지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속년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정규직은 7~22%인데 비정규직은 43~60%다.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정규직은 16~48%인데 비정규직은 4~13%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기근속자 비율은 증가하고, 단기근속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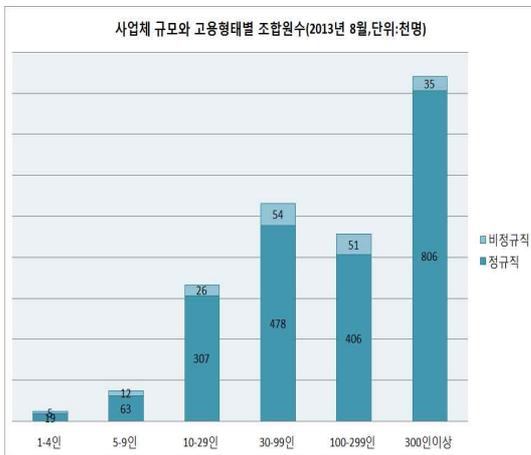


<표9>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근속년수(2013년 8월, 단위:%)

	평균값(년)			중위값(년)			단기근속(%)			장기근속(%)		
	정규 직	비정 규직	노동 자									
1-4인	5.7	1.8	2.7	3.2	0.5	0.8	22.4	60.2	52.1	20.2	3.9	7.4
5-9인	5.3	1.9	3.3	3.3	0.6	1.3	20.3	57.8	42.5	15.8	4.2	8.9
10-29인	6.9	2.6	5.0	4.1	1.0	2.3	17.7	49.9	31.8	25.1	6.7	17.0
30-99인	8.9	3.2	6.9	5.7	1.3	3.5	14.0	42.7	23.9	34.8	9.1	26.0
100-299인	8.8	3.9	7.6	5.9	1.3	4.4	14.4	45.1	21.7	35.4	12.5	29.9
300인이상	11.7	4.0	10.6	9.4	1.4	8.1	7.3	44.9	12.7	48.1	12.2	43.0
전규모	8.2	2.4	5.6	5.3	0.8	2.4	15.1	53.6	32.7	31.6	6.1	19.9

7. 노조가입

2013년 8월 현재 조합원 226만 명 중 정규직은 208만 명(91.9%)이고 비정규직은 18만 명(8.1%)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조합원수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84만 명(37.2%)이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46만 명(20.2%), 100인 미만 사업체는 96만 명(42.6%)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조직률이 42.9%인데 비정규직은 11.2%고,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은 조직률이 2.6%인데 비정규직은 0.2%로,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로 조직률 격차가 뚜렷하다.



<표10>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 현황(2013년 8월)

	조합원수(천명)			조합원 구성(%)			조직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19	5	24	0.8	0.2	1.1	2.6	.2	.7
5-9인	63	12	75	2.8	0.5	3.3	4.9	.6	2.3
10-29인	307	26	333	13.6	1.1	14.7	13.7	1.5	8.3
30-99인	478	54	532	21.1	2.4	23.5	20.1	4.3	14.7
100-299인	406	51	457	17.9	2.3	20.2	30.6	12.3	26.3
300인 이상	806	35	841	35.6	1.5	37.2	42.9	11.2	38.4
전규모	2,079	183	2,262	91.9	8.1	100.0	21.1	2.2	12.4